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네팔 카트만두 선교 현장에서 김상봉 선교사

## 영혼구원을 위한 열망이 네팔에도 ...

선교란 주어진 어떤 환경적 여건 속에서 그 환경적 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 안에서 생존하는 인간 그 자체의 영혼구원이 선결되어야 함은 영원불변한 진리다. 영도 당도 할 때 한 개의 빵이 당장의 위급상황일 때, 물론 물질적 도움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유익의 보살핌이란 혜택을 입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는 한 순간의 도움으로 끝날 뿐 어느새 잊어버리게 된다. 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거품에 풍 나듯 극히 드물다. 이것은 필자의 해외 선교 경험 20년간을 통하여 내린 지론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삶의 현장에 실로 각박하여 당장의 물질이 시시각각 요구되는 생존경쟁의 치열한 마당이다. 저들 영혼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믿음을 심어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물질은 또한 없어서는 안 된다.

특히 네팔과 같은 영세국가, 부정부패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저들에게 물질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선교사가 경제적으로 힘든 대상으로 비쳐지게 되면 사림 자체가 힘든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질을 앞세워선 안 되지만 물질 없이 성공적인 선교 현장을 일구어 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 공도를 닦아가는 일, 영혼을 구원해 가는 사역의 현장에는 그래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런 유익의 물질은 어느 개인의 치부나 가정사를 위한 일이 아니므로 믿음과 복음 전파의 사



명감을 함께 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협력과 협조는 바로 성공적 선교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아무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순서만을 지켜 간다면 말이다.

금번의 선교 목표지가 된 네팔행 역시도 과거에 부족한 종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지를 목표로 하여 떠날 때와 별반 다름없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미비한 여건을 안고 다만 믿음으로 시작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출발 시에 예비금으로 몸에 지녔던 전 자산(全資産)은 그동안 대광리 십년간, 미지림 교회의 탈을 벗지 못한 상황에서 동리 내의 몇 곳을 옮겨 다닌 교회 자리 중 마지막에 도착지를 세웠던 위치가 마침 연천

군청의 신설도로 계획에 포함된 구획이라 하여 강제 이전 명령을 받아 이후 군청에서 내준 이사비용 조급과 그래서 이시한 동두천에서는 생존 자체가 급박하여 별 수 없이 노인전용 택배회사에 적을 두고 발로 뛰는 노동을 하여 얻은 얼마간의 여력을 보탬으로 선교현장을 향한 의지를 결행할 수가 있었다.

실상 이런 외중에서 떠나려면 아예 이혼을 하고 가리는 사모의 불같은 성화를 달래기가 수월하지 않았지만, 만65세가 되던 해까지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가정(家長) 노릇을 대신하기 위해 어느 소규모의 일대에서 힘든 일을 하며 집안일을 맡아주었던 아내의 노고를 다만 하나님의 위로에 맡기며 오늘에 이르렀다.

## '교회건축비 절감 세미나' 20일 CTS서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는 한국교회 건축의 실상!



지금 도처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최근 약 10년에 걸쳐 새로운 도시개발에 따른 교회 이전 특수와 그동안 금지시 되던 금융기관의 저금리 종교 대출 확대에 의해 무수히 많은 교회가 건축되었다.

그러나 금융대출 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건축비 지출과, 교회건축이 곧 '교회부흥의 왕도'라는 개념이 깨어지면서 지금 수많은 교회가 과도한 이자 지출로 인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경제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건축과 정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일까?

첫째로는 역시 과도한 교회건축비 지출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에는 성도의 헌금과 교회의 자산이 건축비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준비되지 않으면 건축자금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최근 잦은 도시개발로 어쩔 수 없이 이전해서 교회를 지어야 하다 보니 적은 보상과 과도한 대출을 받아 교회를 건축하는데, 문제는 건축이후에 성도가 더 이상 기대할 만큼 부흥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이자도 감당 못하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제는 규모를 줄이고 건물의 활용성을 높여서 건축비 차입 의존도를 현저히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둘째는 교회건축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회가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잦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업비를 낭비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보통의 경우 교회는 교회건축을 시작하면서 건축위원회를 조직하여 건축에 관한 모든 진행과 결정을 맡기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성공적인 교회

건축을 이루려면 반드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정확한 예산 편성,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설계, 공사를 어려움 없이 완공할 수 있는 건강한 시공사 선정 등 수많은 건축과정에서 정말 치밀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데 교회가 전문성 없이 협력업체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잘못된 계획, 잘못된 설계, 잘못된 시공사 선정 등으로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건축은 수많은 기술과 경험 전문성을 보유한 CM(회사)와 함께 해야만 사업비를 절감하고 성공적인 교회건축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과도한 교회 건축비 지출이 문제이다. 건축은 설계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적 아름다움에 치중하다 보면 건축비가 자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비효율적인 공간설계, 잘못된 건축공법, 시공성이 부족한 외관 디자인, 이러한 요인들이 건축비를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축비를 줄이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능성 위주의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고 비효율적인 면적을 줄여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건축공법과 시공성을 살려서 건축비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허람씨엠(대표 김철원·원내사)은 3월 20일 목요일 CTS 8층 세미나실에서 교회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초청하여 교회건축비를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디 많은 교회들이 참석하여 각 교회들이 성공적으로 교회건축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한국 동요 90주년! 동요를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

〈제29회 초록동요제〉 예선접수마감 3월 24일

서울YMCA는 밝고 고운 노래, 아름다운 세상'을 동요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9회째인 이번 초록동요제로 친구와, 이웃, 가족이 함께 하는 축제인 초록제는 어린이 중창과 가족 중창,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열리며, 중창은 초등학교 어린이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가족 중창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이면 된다. 가족부분의 경우 세 가족까지 한 팀을 이룰 수 있으며 친척, 이웃의 가족도 함께 참가 가능하다. 두 부분 모두 3명에서 12명까지 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예선은 3월 29(토)일부터 4월 5(토)까지 서울·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의 전국 6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서울·경기 지역예선의 경우 예선대회는 3월 29일(토)이며, 참가자 예선 접수는 3월 24일(월)까지이다.

총 12개 팀이 실력을 겨루는 본선 대회는 다양한 축하무대와 함께 4월 19일(토)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펼쳐진다. 본선대회 대상 수상 팀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장학금 200만원이, 최우수상에는 150만원이, 부분별 우수상에는 각 100만원씩이 장학금으로 주어진다.

※ 문의 : 서울YMCA 청소년활동부 ☎ 02)723-6730 www.youthymca.or.kr

### 혁신적인 교회 건축비 절감을 위한 세미나

허람씨엠이 제안하는 교회건축비 절감 비법

- 일시 :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13:00~17:00
- 장소 : CTS 기독교TV 8층 세미나실 (서울시 동작구 노랑진로 100) 노랑진역 1호선 1번 출구 / 9호선 6번 출구
- 후원 : CTS기독교TV, 국민일보 CBS
- 문의 : (주)허람씨엠 경영지원부 02)2027-6360~1
- 강연기 부사장 010-9363-7188
- 참가비 : 1인 30,000원 · 전화 접수시 무료
- www.hiramcm.com
- ※ 선착순 접수로 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

## 한국 최고의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5,000원 택배비 5,000원 포함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김장철을 맞아 그동안 성원해 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합니다. 믿고 구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단체 주문은 상담 문의 바랍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